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

대중문화 트렌드

2018

강일권 · 권석정 · 차우진 · 정덕현 · 모신정 지음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이 낳은 지각변동은 어디까지?

송강호
이제훈, 장훈 감독
인터뷰 수록

부록
2018 주요 영화
라인업

마리비
북



강일권

한국 유일의 힙합·알앤비 비평 매체인 <리드머>의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잡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음악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강단 있고 눈치 보지 않는 평론을 추구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블랙뮤직 덕후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고, 《대중문화 트렌드 2017》(공저)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권석정

<참여와 혁신> <유니온프레스> <텐아시아>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피키캐스트 뮤직팀장을 거쳐 현재 로엔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팀에서 근무 중이다. 2008년 월간 <재즈피플>에 처음 글을 쓴 이후로 네이버뮤직, 멜론, 대중음악 웹진 <100BEAT>, 월간 <핫트랙스>, 무크지 <대중음악SOUND>, 남성지 <맥심> 등에 글을 써왔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며, K-루키즈 등 다수의 음악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대중문화 트렌드 2017》(공저)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차우진

대중음악 및 미디어 산업에 대한 글을 쓴다. <씨네21> <네이버뮤직> <한겨레21> 등에 글을 썼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며, <네이버 온스테이지> <현대카드 뮤직> 기획에 참여했다. 저서에 <청춘의 사운드> 《대중음악의 이해》 《아이돌: H.O.T.부터 소녀시대까지 아이돌 문화 보고서》 등이 있다.

정덕현

TV와 영화,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 속에 담긴 현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백상예술대상 심사위원이고, 현재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 '정덕현의 TV 뒤집기', KBS <연예가중계> '심야식담'에 출연하고 있다.

모신정

<스포츠한국>에서 대중문화팀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경력 19년 차 기자다. 송강호, 설경구, 최민식, 김윤석, 황정민, 하정우, 정우성, 이제훈, 김혜수, 고현정, 소지섭, 조인성, 강동원, 손예진, 송중기 등의 배우를 비롯하여 장훈, 박찬욱, 김지운, 봉준호, 류승완, 나홍진, 김주환 감독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인들을 인터뷰했다. 한국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128
4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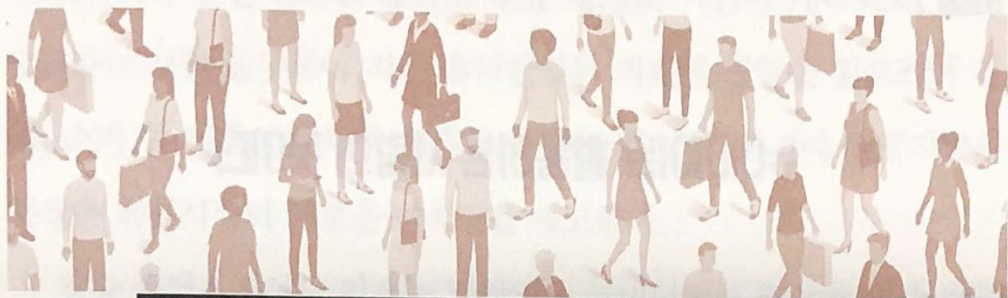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

대중문화 트렌드

2018

03-07

04527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

대중문화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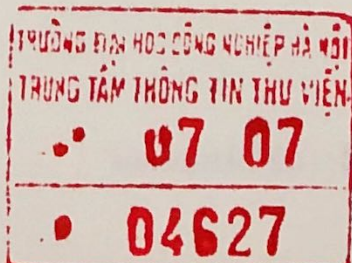
2018

강일권 · 권석정 · 차우진 · 정덕현 · 모신정 지음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이 낳은 지각 변동은 어디까지?



미래비전
퓨전



뉴미디어는 활용하는 사람의 것이다

2017년 K팝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행보가 연일 이슈다. 최근 몇 년간 K팝이 빌보드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미국의 유명 토크 프로그램에 초대되고, 영국 BBC 방송에서 다큐까지 제작한다면 예사로운 반응이 아니다. 이러한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뉴미디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뉴미디어 환경과 그 활용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업계에서는 뉴미디어로 인한 이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적으로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이 낳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음악산업 분야에서는 2017년을

‘뉴미디어의 원년’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SNS라는 개인 플랫폼이 기존 음악산업의 기반에 균열을 일으키며 창작, 소비, 마케팅의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등장은 음원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을 예고한다.

방송 콘텐츠에서도 이제는 일반인도 뉴미디어로 영상을 쉽게 만들고 송출할 수 있게 되면서 잠재적인 연예인이 되는, ‘대중이 주인’이 되는 방송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영화업계에서는 올레 TV나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지났음을 알린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변화에 민감한 대중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다. 2017년 한국의 대중문화업계에서는 이미 그 커다란 용트림이 시작되었고, 무수한 분화를 거듭하고 있다. 《대중문화 트렌드 2018》의 핵심 주제를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으로 정한 이유다. 뉴미디어는 활용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음악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음악산업의 변화

1부 ‘대중문화 K-POP 핫트렌드’에서는 뉴미디어가 가져온 가요계의 이변을 다룬다. <차트밖1위>라는 새로운 채널은 인디뮤지션이었던 멜로망스의 ‘선물’을 단번에 음원 차트 1위로 올려놓았다. 박원의 ‘All Of My Life’는 ‘메이크어스’라는 뉴미디어 방송이 있었기에 좋은 음원 성적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음악 자체’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윤종신의 '종니' 같은 노래는 '외워서 따라 부르고 싶은 노래'라서 차트의 반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는 뉴미디어 시대일수록 콘텐츠 자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역설을 보여 준다. 가사가 되었든 멜로디가 되었든 좋은 음악이 뉴미디어와 만났을 때 비로소 폭발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음악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음악산업의 변화를 짚어보았다. 19세기 레코드의 등장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연장에 가서 듣던 음악을 집에서 들을 수 있게 했고, 워크맨과 MTV는 '혼자서 듣고 보는 음악'을 가능하게 했으며, 인공지능은 음악을 듣는 연령층과 장르를 더욱 다양화한다. 이런 변화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기술 기업의 결합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와 SKT, YG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음악은 감성과 이성이 결합된 콘텐츠로 인공지능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촉매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대에서 음악과 음악의 메타데이터들은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대중이 주인'이 되는 리얼리티 방송의 시대

II부 '대중문화 방송 콘텐츠 핫트렌드'에서는 뉴미디어가 낳은 방송 환경의 변화를 다룬다. 이제는 누구나 SNS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일상을 공유하는 '투명사회'가 되었다. 타인의 일상을 공유하며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공감의 힐링을 느낀다. <효리네 민박> <한끼줍쇼>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이런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며 '대중이 주인'

이 되는 시대를 예고한다.

뉴스의 역할도 달라졌다. 스마트폰으로 일반인도 실시간으로 사회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세상이다. 이에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던 뉴스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하는 심층 뉴스의 시대가 되었다. <뉴스룸>이 그 새로운 뉴스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사태 때 <뉴스룸>이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관점'이 살아 있는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

뉴미디어의 등장은 선호하는 드라마 장르도 바꾸어놓았다. 가족이 거실에 모여 다 같이 보던 가족 드라마, 멜로드라마에서 혼자 집중해서 보아야만 맥락을 알 수 있는 장르 드라마 전성시대가 되었다. <비밀의 숲> <피고인> <군주>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디바이스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장르 드라마'가 급속히 늘어난 데는 2016년 말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2017년 들어선 새 정부의 '적폐 청산'으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차지한다. 대중문화는 사회 현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을 타개하고 싶은 열망은 '타임 리프'와 '올로 청춘'을 담은 <쌈, 마이웨이> <자체발광 오피스> 같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인문학 열풍으로도 이어졌다. 그동안 인문학은 쓸데없음의 세계로 치부되어왔지만, 인문학의 이 '쓸데없음의 세계'야말로 인간의 사고와 능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차이나는 클라스> 등은 ‘지식의 스낵 컬처’ 현상으로 인문학을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게 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즐기는 세상

III부 ‘대중문화 영화 핫트렌드’에서는 올레 TV,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영화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관객 수 자체가 줄었다. 그러다보니 제작자는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볼거리가 풍부한 범죄 액션이나 스릴러에 집중하고,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에 공을 들인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 영화의 기반이자 경쟁력으로 주목받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에 특히 주목받았던 영화 세 편, <범죄도시> <택시운전사> <아이 캔 스피크>의 성공 요인을 영화 현장의 목소리를 빌려 짚어보았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역들인 영화배우 이제훈과 송강호, 장훈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의 탄생 과정과 흥행 배경, 연기관 등을 들어보았다. 관객이 이들 영화를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록에서는 5대 투자배급사에서 내놓은 2018년 영화 라인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담았다. 스릴러, 코미디, 첩보물, 전투 액션, 휴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포진되어 있는 게 눈에 띈다.

이처럼 대중문화 전반에서 뉴미디어의 등장은 대중의 삶을 더욱 촘촘하고 내밀하게 '개인화'하고 '다양화'하면서 많은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뉴미디어와 대중문화 콘텐츠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지각 변동은 어디까지일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대중문화가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7년 12월

저자 일동

차례

프롤로그 4
------	---------

I부

대중문화 K-POP 핫트렌드

‘음악’과 ‘뉴미디어’의 시너지가 낳은 지각 변동

워너원, 아이돌그룹 팬덤의 최대치를 끌어내다 권석정 15
차트 반란자, ‘들어서 좋은 노래’ ‘불러서 좋은 노래’로 권석정 23
역주행, 음악과 뉴미디어의 적극적인 결합 권석정 31
인공지능, 음원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다 권석정 39
음악 미디어, 창작·마케팅·소비의 경계를 허물다 차우진 45
지각 변동, 기술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연합 차우진 54
예능 PD, 예능 프로그램이 일종의 권력으로 권석정 60
힙합의 주연 가사, 저항과 비판인가? 디스와 센 척인가? 강일권 68
샘플링, 이제는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다 강일권 78

II부

대중문화 방송 콘텐츠 핫트렌드

'대중이 주인'이 되는 리얼리티의 시대

리얼리티, 타인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힐링 정덕현 91
주인이 된 대중, 일반인이 잠재적 연예인으로 정덕현 100
〈뉴스룸〉, 새로운 뉴스의 시대를 열다 정덕현 110
적폐 청산, 본격 장르 드라마 전성시대를 열다 정덕현 119
지식의 스낵 컬처, 깊이인가? 넓이인가? 정덕현 129
사드, 한류 드라마에 한류는 없다 정덕현 137
타임 리프, 시공을 초월한 시대적 열망과 소원을 담다 정덕현 147
올로 청춘, 나의 행복을 찾아서 정덕현 156

III부

대중문화 영화 핫트렌드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즐기는 시대

예상의 대박, 관객들의 선택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모신정 169
새로운 플랫폼,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으로 경쟁력을! 차우진 183
• INTERVIEW •	
영화 〈박열〉, 〈아이 캔 스피크〉의 배우 이제훈 모신정 191
세기의 트렌드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국민배우 송강호 모신정 208
2017년 유אל한 천만 관객 영화 〈택시운전사〉의 장훈 감독 모신정 224
부록 2018 주요 영화 라인업 모신정 241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
대중문화 트렌드
2018

© 강일권, 권석정, 차우진, 정덕현, 모신정, 2017

초판 1쇄 인쇄 | 2017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 2017년 12월 25일

지은이 | 강일권, 권석정, 차우진, 정덕현, 모신정

발행인 | 정은영

책임편집 | 한미경

디자인 | 디자인봄

사진제공 | YMC엔터테인먼트, 민트페이퍼, 하이어뮤직, 메이커스엔터테인먼트, JTBC,
CJ E&M,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주)플러스엠
키위미디어그룹, 리틀빅픽처스

펴낸곳 | 마리북스

출판등록 | 제 2010-000032호

주소 | (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5층 21호

전화 | 02)324-0529, 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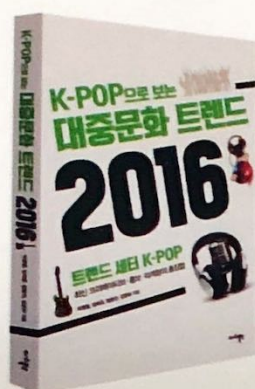
팩스 | 02)3153-1308

Email | mari@maribooks.com

인쇄 | (주)현문자현

ISBN 978-89-94011-76-9 (03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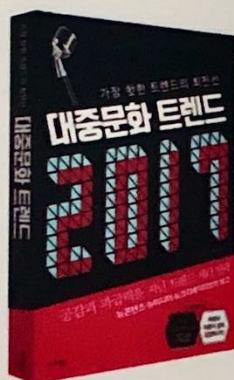
- *이 책은 마리북스가 저작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발행한 것이므로
본사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 *가격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K-POP으로 보는
대중문화 트렌드 2016

박영웅 · 임희운 · 엄동진 · 김윤하 지음 | 268쪽 | 값 15,000원


전 세계 가장 변덕스러운 소비층을 사로잡은 트렌드세터 K-POP
최신 크리에이티브 · 홍보 · 마케팅이 총집결된 하나의
초고속 생물 K-POP



가장 핫한 트렌드의 최전선
대중문화 트렌드 2017

김현식 · 장서윤 · 권석정 외 지음 | 302쪽 | 값 16,000원

엄청난 결집력과 파급력을 지닌 공감문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중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집결한
요체인 대중문화



뉴미디어의 원년 2017, 창작·소비·마케팅 전반을 뒤흔들며 기존 산업에 균열을 일으키다!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업계에서는 '뉴미디어'로 인한 이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적으로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이 낳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음악산업 분야에서는 2017년을 '뉴미디어의 원년'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SNS라는 개인 플랫폼이 기존 음악산업의 기반에 균열을 일으키며 창작, 소비, 마케팅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등장은 음원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을 예고한다.

대중문화 전반에서 뉴미디어의 등장은 대중들의 삶을 더욱 촘촘하고 내밀하게 '개인화'하고 '다양화'하면서 많은 이변을 낳고 있다. 지금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뉴미디어와 대중문화 콘텐츠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지각 변동은 어디까지일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대중문화가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프롤로그에서

대중문화 2018 주요 키워드

워너원·차트 반란자·인공지능·음악 미디어

기술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연합·예능 PD·힙합의 주연 가사·샘플링

리얼리티·주인이 된 대중·뉴스룸·적폐 청산·지식의 스낵 컬처

타임 리프·올로 청춘·예상외 대박·새로운 플랫폼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H



Mã sách: 070704627

값 15,000원



9 788994 011769
ISBN 978-89-94011-76-9